지역 소식통

전기차 화재 대책 조례안 시행

완주군의회 성중기 운영위원장(사진)이 지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현황파악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성중기 위원장은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있어 그 위험성은 더 크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부장

김제시립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28일까지 접수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2023년 관내 초등학생에게 학교 교과과정 외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으로 활기찬 방학 생활을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 생활화 추진위해 여름방학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하며 수강생 접수기간은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홈페이지(http://gil.gimje.go.kr)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8월 7일 부터 18일까지 2주간 '동화요리, 3D펜, 다독다독, 전래놀이, 보드게임, 소품만들기, 어린이 아나운서, 과학마술' 등 8개 강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김제시장은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존감 상승과 체험활동을 통한 방학생활의 활력과 잠재된 창의성 향상과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소양을 함양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2일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개최

김제시는 여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학업 생활과 일상에서 탈피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제2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를 오는 22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함양 및 재능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여성가족부와 김제시가 주최하고 김제시청소년종합센터, 만경·금산청소년센터 주관으로 매년 5회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워터슬라이드, 수영장을 마련해 물놀이를 즐기며 슬러시, 닭강정, 아이스크림, 핫도그 등 먹거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참여형 이벤트 게임을 마련하여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 · 완주에 강한 비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정성주 시장, 피해주민 애로사항 청취

김제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지난 14일 오전 4시 기준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가동해 피해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대본에 따르면 김제에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균 250mm의 비가 내렸고, 많은 곳은 최대 301mm(금구면)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도로침수 9건, 토사유출 4건, 사유시설 침수 5건, 나무전도 11건, 제방파손 1건, 고립 2건 등이다.

김제시는 만경강 및 마산천 수위가 상승하여 하천 범람 위기가 커지면서 인근에 사는 백구면 난산마을과 마전마을 65세대 86명 주민들을 난산초등학교 강당으로 임시 대피 후 응급 구호 80세트, 긴급구호 40세트, 칸막이 텐트 23개 등 구호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했다.

또한, 배수로 범람으로 주택 및 하우스단지가 침수된 청하면 내신마을 주민 7명도 척산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마쳤다.

한편, 집중호우로 7월 15일까지 농작물 침수 피해는 2,500ha 접수되었고 실시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평둔치주차장 1개소, 하천 4개소, 언더패스 6개소 등 피해우려 지역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강수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한 현장 출동과 긴급 복구 등 초동 대처에 온 힘을 쏟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성주 시장은 관내 대피시설을 찾아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호우 피해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정성주 김제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관내 대피시설을 찾아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 집중호우 피해현장 집중 점검… "빠른 복구, 선제대응 만전"

유희태 완주군수가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점검에 나섰다.

지난 15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새벽부터 13개 읍면 전체 피해현장을 돌며,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완주군은 14일 오전 4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며, 14일부터 15일까지 평균 334mm의 비가 쏟아졌다. 누적 최고 강수량은 동상면으로 422mm의 비가 내렸다.

동상면은 14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45mm의 강한 비가 집중됐다.

특히, 삼례교는 14일 오전 10시 40분을 기해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주민 대피에 대비한 준비가 일산분란하게 이뤄졌다.

하천 범람을 대비해 각 대피장소를 마련하고, 이장과 공무원들로 마을별 전담반을 구성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15일 오전 1시부터 2시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직원들은 밤새 긴장된 상태로 자리를 지켰고, 다행히 삼례교 수위가 다소 내려가면서 한 숨을 돌렸다.

하천 범람은 피했지만, 밤사이 비 피해는 이어졌다.

도로침수, 농경지 침수, 법면 유실, 도로 안길 침수, 토사유실, 재방 붕괴, 가로수 전도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총 71건이 접수 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군은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와, 구호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유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빠른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 예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조치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할 것이고, 주민들도 재난 안전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지방부장

도내 곳곳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가 집중호우 피해현장 긴급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김제시, 산업 · 농공단지 협의회장 간담회

글로벌 경제위기 속 기업애로사항 청취 · 도민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협력 방안 모색 등

김제시는 지난 14일 지평선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복지국장, 투자유치과장 등 시 관계자와 관내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북도민의 화합 한마당인 제60회 전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산·관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출액 소기업에 대해 물류비,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2023년 추진하는 김제시 기업지원시책에 대한 설명 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구축 등 단지 내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중점 설명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지평선산업단지에서 열리는 전북도민 체육대회 경기종목인 롤러, 축구, 파크골프에 대한 경기 운영 안내와 교통통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9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와 14개 시·군 선수단 간 자매결연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응원과 격려방문 등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다.

김대중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은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제시에 감사하다."며 "산업·농공단지 협의회도 김제시와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재영 경제복지국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기업이 더욱 커 나아가길 바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4일 지평선 다목적 복합센터에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신규 지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 극복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김제시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선도단체 신규 지정 · 현판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신규 지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4일 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과 함께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제시는 현재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김제시회복지관, 김제시립도서관 등 총 10개소를 치매극복 선도 기관 및 단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김제도농협력사업단은 김제시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연계 추진하고, 치매파트너로서 치매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은 "치매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다. 지속적으로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김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동참을 원하는 단체 및 기관은 김제시 치매안심센터(☎063- 540-273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음식, 합리적 가격 제공

10월 5일 개최… 대표음식 '소고기 삼채 육개장' 선정

모든 음식 만원 이하 제한 ·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 등

김제시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벽골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지역 대표 음식을 선정해 김제민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읍면동 특화음식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금산면의 소고기 삼채 육개장이 축제 기간 중 김제 대표 음식으로 소개될 예정으로 지역 특산품인 삼채 뿌리와 한우를 이용해 얼큰하고 진한 맛의 푸짐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된다.

그 외에도 특화음식 경연대회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청하면(고사리 닭개장), 진봉면(보리 삼색 주먹밥), 검산동(파프리카 잡채), 봉남면(한우사골 떡국), 금구면(수수부꾸미) 등도 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으로 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이용해 정성껏 조리한 특화음식을 벽골제 먹거리장터에서 누구나 맛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모든 음식 메뉴를 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향의 넉넉한 인심을 담아 김제민의 맛을 선보일 예정으로 최근 많은 지역 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축제 내 모든 판매 부스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가격공시를 통해 K-바가지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지구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축제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대한민국 착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축제 대표 음식인 '소고기 삼채 육개장

완주군, 감염 취약시설 관리 만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 방역 조치 완화 시행 따라

고위험군 상주 감염취약시설에 방역물품 배부 등 집중 관리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감염취약시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확진자 격리의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등 대부분의 방역정책이 권고로 전환됐고,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일부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 개편 이후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6월 4주차에 다시 감염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전국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돌파했다.

이에 완주군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례 증가에 따른 신속한 예방, 감시, 조치 등 대응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 다수 발생시설에 감염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보건소 간 비상연락체계 마련 △외출·외박·면회 수칙 준수 △입소자·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실시 △자연환기, 기계환기 등 여름철 환기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 외에도 상시감염병 및 잠재적 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상황을 감안해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55개 기관에 방역물품 살균소독제 2,500여개, 에어로졸 1,300여개, 신속항원키트 3,500여개를 오는 19일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 조치가 완화됐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다수 상주해 있는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는 우선시돼야 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방부장